

LG정유, 불법파업 노조원 23명 해고!

정직 235명에 감금 142명으로 총 647명 징계 ... 법과 원칙 준수 강조

LG-Caltex정유가 2004년 7월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 조합원 23명을 해고하는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다.

LG정유는 불법파업 참여 노조원 647명에 대해 4개월간의 징계위원회와 재심절차 등을 거쳐 해고 23명, 정직 235명, 감금 142명, 견책 247명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월23일 밝혔다.

최종징계 대상은 11월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해고 50여명, 정직 300여명, 감금 280여명 등에 비해 중징계 대상이 줄어드는 등 징계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LG정유는 여수공장 명영식 사장 명의로 발표한 <징계확정 발표에 즈음한 입장> 자료를 통해 “불법파업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징계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적용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또 “징계위원회 개최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과 개선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회사 발전의 기틀 마련에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LG칼텍스정유는 2004년 7월 노조의 18일간 전면파업 이후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되고 새 집행부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등 후유증을 겪어왔다.

<화학저널 2004/12/24>